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음 9월 21일) 제21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유치원 공공성 강화 물 흐르듯 진행될까?

유치원 짓는데 최소 50억원, 재원문제가 걸림돌 작용
신설 소요 재정 2000억원 추산, 기재부 동의 미지수
유아교육법 등 법개정에 난항... 해결해야 할 난제 산적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 구상을 대부분 반기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재원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공립유치원 확충부터 예산·부지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수가 많은데도 원아가 크게 적은 것은 대

다수가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유치원이다. 보통 병설은 1~2학급으로 원아 수가 보통 30여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단설유치원을 선호한다. 하지만 하나의 유치원을 짓는데 최소 5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들어간다. 부지확보도 문제다. 교육부는 유치원 신설에 소요되는 재정을 연간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로 끌어다 쓰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편성권을 전 기획재정부가 선택 동의해 줄지도 미지수다.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등 법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박용진 3법'을 단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상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대책이 나오자 즉각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이 지금껏 보여준 국회 로비력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또다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정부 종합대책 발표는 사태를 해결하는 시발점 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지난해 2월에 부패척결 추진단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그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정부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제15회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전북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에서 지난 26일 개막했다. 국화를 품은 용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막 '향기로운 화원' 이 눈앞에

'제15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에서 지난 26일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이번 축제는 '백제왕도의 꿈! 국화향기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내달 4일까지 10일간 펼쳐진다. 올해 축제에서는 설렘으로 시작하는 행복여행, 국화향기 가득한 힐링여행, 새롭게 도약하는 문화여행 등 3개의 여행길(면적 3만3000㎡)을 만날 수 있다. 설렘으로 축제장에 첫발을 딛는 행복여행길에는 익산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사랑을 꽃피우며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트 게이트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용이 지키는 문을 지나 분수대로 내려오면 비밀의 화원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오색국화의 향기 속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느새 치유되는 힐링 여행길을 만날 수 있다. 새롭게 도약하는 문화여행길은 6000㎡ 규모의 국화축제 특별전시장으로 꾸러진다. 특히 국화축제 특별전시장은 가장 공들인 공간으로 지난해와 같이 유료구간으로 운영된다.

내달 4일까지 펼쳐져
특별전시장은 유료 운영
프로포즈 이벤트도 진행

과 특색 있는 볼거리로 관람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상설관행행사로는 익산의 대표 농산물인 탐미루 쌀과 고구마, 국화빵, 국화화장품 등 100여종의 지역 우수 로컬푸드 판매관과 국화 천연비누, 국화 수분크림 만들기, 국화 미니화분심기 등 다양한 국화 관련 체험관도 운영된다. 아울러 이번 국화축제는 사랑의 도시 익산에서 펼쳐지는 국화축제 프로포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을 기념하고 싶은 부부,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연인 등 특별한 이벤트를 원하시는 분이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프로포즈 이벤트로 사랑이 넘치는 익산, 더 나아가 사랑이 꽃피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화향기로 피어난 백제왕도 익산에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시, 전북 중심 거점도시 청사진 마련

전통문화 등 4가지 제시 2035년 목표... 오늘 공청회 열여
관광객 체류시간 늘려·덕진공원 뮤지엄밸리 조성 등 구상
계획인구는 자연·사회적 증가 합쳐 83만5000명으로 책정

전주시가 구도심과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전북혁신도시 주변 금융타운 등을 중심으로 전북 중심거점도시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도시발전 청사진을 내놓았다. 시는 도시의 미래상 재정립과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도시 미래상을 '천년 문화의 중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세계로'라는 비전에 △한국적인 전통문화특별도시 △사람

중심의 생활복지도시 △세계적인 첨단산업·금융도시 △지속 가능한 안전·생태도시의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전통문화특별도시 조성을 위해 전주한옥마을과 옛 전주부성, 전라감영 등 역사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서노송예술촌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밸리, 서학예술촌 등을 연계해 아시아 문화심장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팔복예술공장과 덕진공원, 전주종합경기장, 법원·검찰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동물원 등을 연계해 대규모 문화중심구역인 덕진공원 뮤지엄밸리를 조성해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첨단산업·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과 농생명 금융거점으로 특화시키고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에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을 집적화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구상도 담았다. 이외에도, 전주역 배후지와 경륜장 주변 등에는 정주 플랫폼을 구축하고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에는 청년창업성장 플랫폼을 구축기로 했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는 문화공원과 체력·편익시설 조성해 휴양공간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혁신도시와 완주군과의 시·군 경계를 재조정하고 2035년까지 계획인구는 자연적 증가인구 65만9,000명 사회적 증가인구 17만 6,600를 적용 83만5,000명으로 책정했다. /송효철 기자 (2면에 계속)

축! 전주매일 창간

아이에게 시간을 주세요

놀이와 학습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놀이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키우고
세상과 어른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놀면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전북도교육청은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